

‘킹’ 도전 김종인... 비문 단일화 역할 주목

“통합정부로 나라 안정 시키겠다” 대선 출마 선언

최종 안철수 키패이커 관측도...중도·호남 지지 관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의 ‘통합정부’를 고리로 한 비문(비문재인) 후보 단일화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며 “‘위기 돌파 통합정부’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경제민주화, 개혁, 그리고 통합정부에 공감하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은 문 후보의 독주를 막으면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을 결집해 판을 새롭게 짜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는 그동안 문 후보를 위시한 친문(친문재인)은 협치가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는 ‘독자정부’를 고집하고 있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문 후보의 지도력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 나왔지만 결국은 통합정부 구성을 목표로 한 ‘통합연대’ 플랫폼을 만드는 데 치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단 소속 정당이 없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등과 뜻을 모은 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합류를 건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통합정부와 개혁 등을 고리로 연대·통합하는 수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계획이 성사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차기 정부는 경제·사회·외교·통일 등 분야별로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의 통합정부가 된다는 게 최근 김 전 대표를 만난 정치인의 전언이다.

따라서 이날 대선 출마도 협상의 주도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 전 대표가 직접 나서야 대선주자들이 연대·통합의 절박감이 생길 것”이라면서 “결국 중장역은 반문재인 대선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안철수 후보의 키패이커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구상대로 국민의당 안 후보까지의 연대 내지 통합이 성사된다면 안 후보 중심의 반패권·통합 세력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간 대결로 대선구도는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민주당 내 비문세력의 집단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비문계인 이연주 의원은 6일 탈당,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대선 구도 재편을 지켜봐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 문 후보 측도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의당 등과의 연대 또는 통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의 이 같은 구상이 쉽사리 성사되기 어렵고 성사되더라도 결국 마포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당장 안 후보가 특정인을 반대할 연대에는 부정적일 뿐 아니라 통합정부란 개념이 자칫 ‘권력 나눠먹기’로 국민에게 비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전 대표의 구상이 중도층과 보수 일각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부와 나아가 아권의 심장인 호남의 민심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팀워크로 이룬 ‘국민의당 경선 성공’

당직자·자원봉사자 등 타지서 숙식 해결하며 경선 관리

국민의당 경선 성공에는 당직자들과 보좌진,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완전국민참여경선을 대선 후보 선출 방식으로 택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했지만 원내 39석의 소수 정당으로 재정과 인력난에 봉착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당직자는 물론 현역 국회의원 보좌진까지 차출하는 총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청년 자원봉사자까지 모집, 경선 관리에 나섰다.

30개 경선관리팀(1개팀 5명으로 구성)은 전국 지방공공, 도심과 산골, 어촌에 까지 마련된 투표소에 투입돼 권역별로 이동하며 철저한 경선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은 경

선이 진행됐던 2주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일정에 따라 타지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은 물론 속옷도 인근 마트에서 구입해 입는 등 갖은 고생을 다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노력 끝에 국민의당 경선이 성공리에 끝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경선 관리팀에 참여했던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고생만 큼 희망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경환 의원실 김홍중 보좌관은 “취약 지역이었던 경북 투표소에 파견됐을 당시,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하려고 모여든 시민들을 볼 때 가슴이 뭉클했다”며 “고생은 정말 할만큼 했지만 결과가 좋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선대위 대변인 박광은·윤관석

안희정·이재명 캠프서 대거 합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본선을 이끌 통합선대위 대변인단에 당은 물론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됐다.

문 후보 측 수석대변인인 박광은 의원은 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보 단장에 문 후보 경선캠프 수석대변인이었던 박광은<사진>의원과 당 수석대변인인 윤관석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수석대변인에는 유은혜·당 정책위 수



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대변인에는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안 지사 경선캠프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기존 문 후보 경선캠프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대변인도 유임됐다. 이 시장 경선캠프 대변인이었던 김병욱·재운경 의원도 대변인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안철수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5일 “김경진(광주 북을) 당 수석대변인(안철수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후보와 24시간 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안 후보와 조찬을 함께하며 선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안 후보가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러달라고 요구했고, 저도 당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제 미래 대 과거의 경쟁



이 시작된다”며 “안철수의 미래와 문제인의 과거가 경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골리앗을 신념의 다윗이 이기듯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로, 패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안철수와 함께 국민과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심상정 정의당 전남선대위 활동 본격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전남선거대책위원회가 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대위 활동을 본격화했다.

전남선대위위원장 정의당 윤순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촛불 혁명을 계승하는 근본적 개혁의 적임자를 선택

하는 선거”라며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책임자임을 자임한다”며 전남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그는 심 후보의 전남 지역 대선 공약으로 쌀농사에 대한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팽목항과 목포신항 순례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종형기자 golee@

이연주 탈당에 민주 ‘뒤숭숭’

추가 이탈 촉각...비문 10여명 거취 고민설도

더불어민주당 비문(비문재인)계인 이연주 의원이 6일 탈당,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으로 5일 알려지면서 다른 비문 인사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문계 핵심인 박영선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선후보의 ‘양념’ 발언을 두고 거세게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이 의원의 탈당 소속이 전해지면서 문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에 임해야 할 당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 추

이 등과 맞물려 비문진영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탈당은 지난달 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29일 최병길 의원에 이 의원이 세 번째다.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 등으로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탈당이 비문계의 추가 이탈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비문 의원 10명여가 거취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이종걸·노웅래 의원 등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인 비문계 일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문 후보와의 관계설정,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대표 지원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경선 끝나고 다시 만난 것이다. 정례적인 모임에 가깝다. 가벼운 자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후보 측도 통합 선대위 구성을 통해 이 같은 어수선했던 기류를 차단할 것이 확실시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공보단 인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 인사들을 대거 가용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형성된 친문 주류를 향한 불신이 쉽게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안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랜 피해의식은 오해를 낳는다. 저녁부터 갑자기 후원금 1004원 들어오길래 이젠 또 뭔가 의심했는데 안 지사 멘토단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또 “아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저녁 밥상에 ‘양념갈비’를 내놨다”고도 썼다. 이는 경선에서 문 후보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이에 대한 문 후보의 ‘양념’ 발언을 비문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